

합격기
[제54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전국) 합격]

“의심하지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라”



표 대 범

- 1978년 10월 생
- 마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前) 국제방송교류재단(아니랑국제방송) 라디오 PD
- 2010년 제54회 행시 일반행정직렬(전국) 합격

I. 합격수기를 쓰며

합격수기를 의뢰 받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10월 초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파아란 가을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코끝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도 이 곳 신입동은 삭막합니다. 바로 행정고시 2차 합격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합격수기가 고시계에 게재될 11월에는 2차 합격자 발표가 났을 것이고, 11월 말에는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게 될 것입니다. 최종합격하신 분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낙방하신 분들도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잘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가 제 나이 스물아홉입니다. 주위의 많은 지인들이 만류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바로 ‘나이’와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즉, 고시에 입문하는 이들의 평균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시작하는 것은 이해력이나 암기력, 체력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하나였고,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언제 붙을지도 모를 수험생활로 들어간다는 것이 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한 바 있어 입문한 고시, 시작할 때의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반드시 합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학업에 정진한 결과 2010년 11월에 최종합격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합격수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

득한 제 경험이 녹아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고 합격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II. 수험기간 리뷰

1. 수험기간 : 만 4년 11개월

처음으로 고시공부를 시작한 날이 2006년 1월 1일이고 최종합격자 발표가 2010년 11월 말이었으니, 총 수험기간은 만 4년 11개월이 됩니다. 이 때가 제 나이 서른 셋입니다. 1차 시험에 낙방한 해에는 몇 개월간 재충전의 시기를 가지기도 했었고 2차 시험을 치른 해에는 또 얼마간의 휴식기간을 가지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 책을 잡았던 기간을 수험기간으로 계산한다면 그보다 훨씬 줄어들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수험생의 신분이었으므로 그 기간 또한 수험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연도별 개요

2006년에는 1차를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해 1월에 고시에 입문하자마자 당장 1차 원서접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차에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 전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경험삼아 1차 시험을 치러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낙방이었고, 다음 해를 기약하며 학업에 매진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1차를 통과하게 되고 처음으로 2차에 도전하게 됩니다만 실력이 부족하여 2차에 낙방하게 됩니다. 심기 일전하여 준비한 2008년도 1차에 낙방

하게 되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행정고시는 사법시험과 다르게 1차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동일년도에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1차 시험을 불합격하게 되면 그 해의 수험 스케줄이 사실상 백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차 시험 불합격 = 수험기간 1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저에게는 가장 큰 수험생활의 고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후 2009년도에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도전하지만 낙방하게 됩니다. 과락을 맞은 과목은 없었으나 평균점이 합격선에 미달하였습니다. 수험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와 함께,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도전한 결과 2010년도에 2차에 합격하고, 마지막 3차 면접에서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III. 과목별 공부방법

각 과목별로 제가 사용한 공부방법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에 따르면 합격생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공부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중요한 것은 어떤 교재, 어떤 강사의 수업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찾아내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것이며, 본인이 고민하는 만큼,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는 생각에는 모두들 일치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합격수기

를 참고하되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확립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 1차 시험 : 잘 푸는 것보다 잘 버리는 것이 중요

수험기간 동안, 1차 시험인 PSAT을 통과하지 못하여 고시를 포기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PSAT를 썩 잘하는 부류는 아니어서 1차를 무사통과하기 위한 전략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준비과정에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정해진 시간에 모두 풀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저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일단 취한 것은 정답률을 높인다'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길거나 어려운 지문(언어논리영역) 또는 연습과정에서 한번도 접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들은 과감히 그리고 빠르게 건너뛰고, 익숙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의 지문을 먼저 풀다던지 또는 단순한 자료 읽기나 자료해석 문제를 먼저 해결하되 일단 손을 댄 문제는 무조건 맞힌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방법을 취하게 되면, 80분 동안 문제책을 여러번 반복해서 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고 쉬운 문제들로만 15~20문제를, 두 번째 사이클에는 남은 문제들 중에서 도전해 볼만한 문제들을 골라서 풀게 됩니다. 세 번째 사이클도 그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이렇게 풀면 80분 동안 문제책을 3~4회 정도 반복할 수 있고 총 40문제 중 32~33문제 정도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29~30개를 맞히

고, 아예 손대지 않은 7~8문제 중 1문제 정도만 맞혀준다고 하면 75점 이상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최대한 많이 풀어서 고득점을 노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한 다음 능력껏 풀되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일견(一見)에 풀어야 할 문제인지 넘어가야 할 문제인지를 판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많은 연습이 요구됩니다. 최고의 학습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공했던 방법이므로 제 나름대로는 이 방법이 주효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 2차 과목 : 과목별 맞춤전략이 중요

PSAT이라는 거대한 문지기와 힘겹게 싸워 이기고 나면 다섯 마리의 거대한 괴물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벅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마리가 모두들 동일한 것들은 아니어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마리는 덩치도 남들보다 크고 포악한 반면(경제학, 행정법), 나머지 세 마리는 마치 형제들처럼 비슷비슷한 면도 있습니다(행정학, 정치학, 선택과목). 이러한 특성에 알맞은 공략법을 사용한다면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1) 경제학

1) 주 수험교재

미시경제학(이영환 저), 미시경제학의 ZIP, 거시경제학의 ZIP, 직접 작성한 서브

2) 공부방법

경제학은 끝까지 저에게 가장 부담스

러웠던 과목으로 기억됩니다. 경제학을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경제학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응용문제를 푸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수험 초반에는 황중휴 강사의 수업을 들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김진옥 강사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히 2010년 2차 시험을 앞두고 3순환이 시작되었을 때 나름대로 도박을 걸었는데, 다행히 아닌 3순환과 4순환을 포기한 것입니다.

경제학의 기초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3순환을 따라가느니 오히려 기초를 다지고 기본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진옥 1순환과 2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오히려 기초개념 정립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해 3순환과 4순환은 듣지 않았으며 문제조차 구해서 풀어보지 않았습니다. 2차 시험 전날까지 기본개념 및 수식 암기에 힘썼으며, 기본유형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실제 수험장에서 응용문제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교과서의 어느 단원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침착하게 떠올리며 최대한 깔끔하게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의 2차 시험 경험 중 최초로 50점을 넘기면서, 경제학이 합격의 일등공신이 됩니다.

(2) 행정법

1) 주 수험 교재

행정법개론(정하중 저), 행정법역기스(정선균 저)

2) 공부방법

행정법은 방대한 양과 용어의 생소함

등의 이유로 인해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체감상 대단히 부담스러운 과목입니다. 하지만 회독수가 늘어나고 답안 작성 경험이 증가할수록 학습부담은 줄어들고 오히려 전략과목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친구의 추천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쉽게 쓰여져 있고 가독성이 뛰어나서 장시간 독서를 해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하중 저로 강의하는 정선균 강사를 알게 되었고 마지막 해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토리가 흐르는 목차 구성입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있는 목차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습답안 쓰고 나서 스스로 침착 해보면서 이 목차가 최선인 것인지, 불필요하거나 누락된 목차는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분절형으로 출제되는 최근 경향상 큰 목차 보다는 세부 목차 내에서의 탄탄한 구성에 힘썼고, 학설 및 판례를 압축적으로 서술하면서 사안의 포섭을 최대한 정지(精緻)하게 서술하려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론공부와 사례공부의 병행입니다. 이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례풀이가 겹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론을 모두 본 다음에 사례로 넘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공부는 사례풀이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례를 풀다보면 이론공부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서술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한 감

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론과 사례는 양자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험 초기에는 이론의 비중을 높이되 2차 시험 막판에는 사례풀이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행정학

1) 주 수험교재

새행정학(이종수 외), 한국행정학(유민봉), 재미있는 행정학(박경효), 각종 논문

2) 공부방법

행정학 공부방법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행정학이 ‘뜬구름잡기’라고 하는 것은 ‘신화(Myth)’에 불과합니다. 행정학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이상, 논리 전개는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흔히, ‘서론-의의-배경-특징(장점, 단점)-결론(해결방안)’으로 작성하는 바로 그 틀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단순한 틀이 공부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행정학은 실체가 없는 과목이라 대중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주위의 합격자들은 적어도 이 문제를 보았을 때 무엇을 써야하는지 정확하게 결정한 다음 서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강사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주변의 학습방법에 동요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행정학에 관해서는 학원수업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학 관련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학이 대

단히 생소했지만, 강사가 이해하고 있는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제가 책을 읽어서 이해하고 있는 행정학과 조금이라도 상충할 때에는 과감하게 수업을 배제했습니다. 제가 기껏 이해한 내용들이 흔들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학은 답이 없는 과목이라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들어주시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에서 탈피할 수 있고, 오히려 고득점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튀거나 과격적인 답안을 서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 그러니까 상식에서 크게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 답안을 서술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정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과학의 발전은 없겠죠)

(4) 정치학

1) 주 수험교재

정치과정으로의 동학, 국제정세의 이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등 다수의 교양서적, 각종 논문, 키워드 수첩

2) 공부방법

정치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바로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까지를 포함하는 수직(시간)축과 정치사상, 정당, 선거, 의회, 리더십, 정치문화 등 다양한 세부 분야로 대표되는 수평축이 만들어 내는 대단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수험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특히 간접민주주

의)와 운영원리로서의 선거, 의회, 정당 등을 중심으로 하고, 민주주의를 원활히 작동케 하는 윤활유로서 정치문화와 사회자본 등을 학습하는 것으로서 정치학의 윤곽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국제관계)의 양대 축인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최근의 추세인 환경, 여성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이해를 덧붙인다면 막막해 보이기만 하던 정치학의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학은 수험가에서 소위 대세로 불리는 교재가 자주 바뀌는 편이고 정치학 전체를 아우르는 교과서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된 교양서적을 읽고 그것을 정리하여 별도의 노트를 만드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문과 시사잡지를 째짤이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심화학습을 위해서 각 강사의 논문집 중 주요 논문을 발췌하여 학습했습니다. 신문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서술을 지양하기 위해 키워드를 이용한 압축적 서술을 하려 연습하였고, 수집된 키워드는 별도의 노트에 정리하였습니다.

정치학은 행정학과 달리 세밀한 목차 구성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목차 수는 적어지고 서술 내용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문장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책이나 칼럼, 논문 등을 참조하면서 서술 스타일을 체득한다면 서술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만은 않은 과목이 정치학인 것 같습니다.

(5) 선택과목 : 조사방법론

1) 주 수험교재

행정조사방법론(남궁근), 조사방법론의 제문제, 직접 작성한 서브노트

2) 공부방법

조사방법론은 여론조사, 인식조사, 제도의 도입 전후의 효과성 비교 등 다양한 행정조사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행정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조사방법론은 일반행정직 선택과목 중 인기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학원가에서 순환별 수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기출문제 해설 등 축적된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재 선정부터 수험생 스스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사방법론은 분량이 적다는 데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 직전에 약 3시간이면 1회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암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나 두문자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분량을 압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설계시의 내적 논리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뢰성과 타당성 등 조사방법론 특유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으면 전략적으로 충분히 선택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3. 3차 시험 : 면접

개인적으로 생각건대, 가장 불기 힘든 시험은 2차 시험이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단계가 바로 이 3차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고시 2차 합격자 수는 최종합격자 수의 약 120%정도가 됩니다. 이는 2차를 합격하더라도 약 20%의 합격자는 결국 3차 면접에서 낙방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이 탈락자가 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사법시험과 달리 면접탈락자에 대한 필기시험면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3차 면접시험은 2차 성적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베이스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지면의 한계상 오전에 진행되는 집단토론, 오후에 진행되는 프리젠테이션과 개별면접(2010년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서술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잠시 미루어두었던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공직에 뜻을 두었는가, 나는 공직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내가 일을 하고 싶은 분야는 어디인가, 어느 분야에서 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등의 개인적인 질문으로부터, 공적인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나는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등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진지한 고민의 노력들이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IV. 마치며 : 입문한 이상 의심하지 말라

꿈에 그리던 최종합격 후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주로 행정고시를 입문하면서 수험 계획을 혼자 세우기 힘들다는 내용, 1차 시험에서 매년 낙방하여 의기소침해지고 있다는 내용, 또는 개별 과목의 공부 방법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 마다 꼭 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문한 이상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고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합격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학업환경이 좋지 못해서 등의 생각은 합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시생이 된 순간부터 여러분의 합격은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을 정진하십시오.

그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만 하십시오. 수험생활이 낭만적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며 고통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힘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먼저 마음과 뜻을 꺾고 빠르고 뚝뚝해지는 듯한 고난을 당하게 하며, 몸을 굽추리게 하고, 생활을 곤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나니, 그러한 까닭은 마음을 단련시켜 능히 사명하는 바를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 맹자 고자장(告子章) 중